

티, 국제상사 8550억원 수준 인수

창원지법, 이랜드의 즉시항고 기각 ... 소비재 부문으로 영역 확장

LPG 수입기업 E1의 국제상사 인수가 사실상 확정됐다.

E1에 따르면, 2006년 12월29일 부산고등법원은 법정관리기업 국제상사의 인수자로 E1을 선정하는데 불복한 이랜드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E1 관계자는 “법원 결정으로 스포츠용품 등 소비재 부문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1은 2006년 5월께 창원지법으로부터 국제상사 정리계획 변경안을 인가받고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수가격은 8550억원 수준이다.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던 E1의 인수절차는 구 주주인 이랜드 측이 창원지법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내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랜드가 부산고법에 항고하는 한편 정리계획 변경안 수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1/04>